



<최희섭>

“한국 최고 거포 나와 나”

최희섭-이대호 프로야구 올스타전 홈런포 대결

“빅쇼이” 최희섭이 시원한 홈런대결에 나선다. 오는 24일 대구구장에 프로야구 별들이 총출동한다. 스타 선수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올스타전의 백미는 역시 홈런레이스. 여름 더위를 한방에 날려줄 홈런레이스의 주인공들이 결정됐다. KIA 타이거즈의 최희섭과 함께 이대호·홍성흔(이상 롯데), 박정권(SK), 김현수(두산), 클락(넥센), 조인성(LG), 최진행·김태완(이상 한화)이 불꽃튀는 장타대결을 벌일 선수로 선정됐다.

이중에서도 웨스턴 리그를 대표하는 거포 최희섭과 이스턴리그의 핵심 이대호의 한방 싸움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 거포의 대결은 ‘리턴 매치’다. 지난해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렸던 올스타전에서 이대호와 최희섭은 각

각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했다. 안방에서 홈런왕 타이틀을 놓쳤던 최희섭은 다시 한 번 우승에 도전한다. 정규리그 성적으로는 이대호가 한 발 앞서있다. 이대호는 20일 경기까지 28개의 홈런을 때려내 정규리그 홈런 1위를 달리고 있다. 무서운 한방 뿐만 아니라 정교함까지 동시에 장착해 0.362의 타율로 1위를 지키고 있다. 타점도 84개를 만들어내 2위에 올라있다.

최희섭은 부상 여파로 한방 곡선이 주춤하다. 지난해 김상현과 팀내 홈런왕 경쟁을 벌이며 33개의 홈런포를 쏘아올렸던 최희섭은 15개의 홈런으로 롯데 강민호와 공동 9위에 머물러 있다. 왼쪽 가슴 타박상 등으로 잠시 자리를 비웠던 최희섭은 ‘한방라인’을 구축했던 김상현까지 부상으로 장기간 라인업에서 빠지면서 홈런 수확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 최희

섭과의 승부를 피해가는 상대 마운드 탓에 홈런 대신 4사구가 쌓여가고 있다.

하지만 최희섭은 빅리그에서도 통했던 괴력을 보유한 거포 중의 거포다. 최희섭은 홈런 레이스 우승뿐만 아니라 이번 올스타전에 선보이는 비거리 134m의 ‘1억 홈런존’을 넘길 유력한 후보로 손꼽히고 있다.

양 리그를 대표하는 두 선수뿐만 아니라 차세대 거포로 급성장한 홈런 2위(24개)의 한화 최진행과 최다 득점의 영예를 안은 ‘올스타의 스타’ 롯데 홍성흔의 한방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넥센 클락은 유일한 외국인 타자로 토종 거포들과의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이번 홈런레이스는 예년과 달리 예선을 거치지 않고 올스타전 당일 오후 4시부터 7아웃 단판제로 진행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대호>



장애물을 넘어...

21일(한국시간) 캐나다 멩크톤에서 열린 국제육상경기연맹 주니어선수권대회 여자 3000m 장애물 경기에서 선수들이 경쟁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지애-위성미 예비앙서 ‘맞짱’

예비앙마스터스 오늘 개막 1·2R 동반플레이

신지애(22·미래에셋)와 재미교포 위성미(21·나이키골프)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예비앙 마스터스 1,2라운드에서 동반 플레이를 펼친다.

대회 조직위원회가 21일(이하 한국시간) 발표한 1,2라운드 조 편성 결과를 보면 신지애와 위성미는 모건 프레셀(22·미국)과 같은 조에서 경기를 한다.

신지애와 위성미는 8일 시작됐던 US여자 오픈 1,2라운드에서도 한 조에 묶인 데 이어 ‘제5의 메이저’로 불리는 이번 대회에서도 다시 함께 경기에 나선다.



<신지애>



<위성미>

예비앙 마스터스는 프랑스 예비앙-르뱅의 예비앙 마스터스 골프장(파72.6천344야드)에서 22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신지애 조는 22일 오후 4시20분 1라운드 경기를 시작한다. 세계 랭킹 1.2위 미야자토 아이(일본)와 크리스티 커(미국)도 같은 조에서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인다. 미야자토와 커는 올해 US여자오픈 챔피언 폴라 크리머(미국)와 함께 신지애 바로 앞 조에서 출발한다.

대회 조직위원회가 미야자토-커-크리머, 신지애-위성미-프레셀 조를 나란히 배치하며 ‘홍행 카드’를 내민 셈이다. /연합뉴스

프로복서 배기석 끝내 사망

지난 17일 경기후 의식불명

경기 후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프로복서 배기석(부산거북체육관)이 숨졌다. 향년 23세.

한국권투위원회(KBC)는 21일 “배기석 선수가 오늘 오전 4시20분 대전을지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배기석은 지난 17일 충남 예산에서 펼쳐진 정진기(일산주엽체육관)와 한국 슈퍼플라이급(52.160kg) 타이틀 매치를

마치고 병원으로 실려간 끝에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배기석은 이날 8회 TKO 패를 당한 뒤 구토 증세를 호소했고 대전을지대학병원으로 옮겨져 5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배기석의 유족으로는 할머니와 남동생이 있다. 배기석은 2003년 5월 프로에 데뷔했다. 정통파 스타일로 7승(4KO)1무7패를 기록하고 있다.

프로복싱계에서 경기 후 선수가 사망한 것은 2008년 1월 최요삼 선수가 이어 2

년 6개월 만이다. 1982년에는 김득구가 세계복싱협회(WBA) 라이트급 타이틀전에서 레이 맨시니(미국)에게 14회 KO 패한 뒤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나올 만에 사망했다.

한국권투위원회(KBC)는 한국권투위원회 부산지회장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잠정 결정하고 배기석의 유족을 돕기 위한 모금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연합뉴스



고(故) 배기석 선수의 생전 모습.

한국, 아르헨 꺾고 4연승 질주

여자핸들볼 세계주니어선수권 유은희 맹활약... 36대 32 승

20세 이하 여자핸들볼 대표팀이 아르헨티나의 추격을 뿌리치고 제17회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4연승을 달렸다.

대표팀은 21일 광주 영주체육관에서 열린 예선 B조 4차전 아르헨티나와의 경기에서 후반 동점까지 가는 접전 끝에 36-32로 승리를 거뒀다.

4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챙긴 대표팀은 각 조 상위 3개 팀이 오르는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다.

이은희의 첫 골을 시작으로 한국이 5골을 연달아 몰아넣으며 패조의 출발을 했다. 아르헨티나가 7-5까지 따라붙자 주장 유은희의 힘이 발휘됐다. 7m 스코어를 성공시키며 8-5를 만든 유은희는 가로채기로 상대 진영을 흔들며 10-5까지 점수를 벌였다. 유은희는 전반전 마지막 골까지 성공시키며 20-14를 만들었다.

후반들어 아르헨티나의 추격이 시작됐다. 전반 맹활약했던 유은희가 7m 스코 두 개를 놓치는 등 상대 골문을 열지 못하면서 아르헨티나의 공세가 이어졌다.

유은희와 조효비의 솜이 연속해서 골대를 맞고 나온 사이 아르헨티나가 차근차근 득

점을 성공했다. 종료 7분여를 남겨두고 투시아 지압베라르디노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경기는 31-31 원점으로 돌아갔다.

위기 상황에서 한국의 집중력이 발휘됐다. 이세미의 7m 스코가 성공하면서 역전 위기를 모면한 한국은 골키퍼 박소리의 선방까지 더해 분위기가 반전에 성공했다.

김선화는 재치있는 플레이로 골을 추가한 한국은 속공으로 아르헨티나를 제압하면서 36-32 승리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부상 투혼을 선보인 유은희가 8골을 기록했고, 이세미도 6골을 더했다. 후반 위기 상황에서 천금 같은 추가골을 성공시키는 등 7골을 몰아넣은 김선화는 경기 MVP에 선정됐다.

한국은 22일 오후 2시10분 같은 장소에서 3승1무를 기록한 네덜란드와 조 1위 자리를 놓고 예선 마지막 경기를 갖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Grand open

한국 최고 사설 스크린 골프장

자이언트골프존

- 퍼미트 스코어링 전용인 스마트볼 / 최다인원 동반
- 최첨단 사설 서비스 / Taylor Made 클럽 판매
- 200여개의 넉넉한 주차공간

문의 : 521-0071